

1920년대 중국 공산주의의 인간화와 혁명*

— 瞿秋白의 이념의 현실화와 변용

이 현 복**

<목 차>

1. 서론
2. 공산주의 인간화의 의미 - 이상의 현실화
3. 문화혁명에서 정치혁명으로
4. 혁명과 주체의 문제
5. 결론

1. 서론

5·4운동은 단치루이(段祺瑞) 정권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정치 운동적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새로운 국가체제나 정치체제를 세우는 정치혁명은 아니었다. 혁명 지사들은 辛亥革命을 통해 왕조체제를 붕괴시키고 공화제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소수 엘리트들 사이의 정치권력의 이동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결국 쑨원(孫文)과 위안스카이(袁世凱)의 정치적 타협으로 마무리 된 혁명은 군벌의 난립과 국가의 분열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반면, 5·4는 대중으로서 평민을 발견하는 장이 되었다. 이에 참여했던 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은 국민의 도덕을 새로이 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자 했기 때문에 국민성 개조를 내세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4944).

**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인문학부 중어중문학전공 조교수(scentoftree@kangwon.ac.kr)

웠으며, 新村運動이나 互助工讀運動과 같이 함께 일하고 함께 공부하는(半工半讀) 생활문화운동을 실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운동과 생활운동은 현실적으로 좌절될 수밖에 없었으며, 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은 꿈꾸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사회 진출에도 실패한 채 각자의 출로를 찾기 위해 삶으로 돌아가야 했다.¹⁾

5·4운동에 러시아어문전수관 대표로 참여하였던 취추바이(瞿秋白) 역시 이러한 5·4 퇴조기의 고민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그는 몰락하는 계급의 일원으로서 빈곤의 고통을 경험해야 했고, 설상가상으로 빈곤을 이기지 못한 어머니의 자살은 그의 좌절감을 더욱 심화시켰다. 사회적 삶과 개인의 삶 모두에서 실의했던 그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광명을 던져주겠다는 구세의 의지를 품고²⁾ 《신보晨報》의 요청에 응해 출로를 마련하고자 소비에트러시아로 향했다.

5·4의 좌절은 새로운 이념과 실천을 요구했는데, 새로운 국가와 사회를 건설한 소비에트러시아의 경험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 소비에트러시아는 정치혁명을 통해 이념을 현실에서 구현하려 시도하던 국가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중국과 중국인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했고, 그 개인에게 있어서나 사회 전체 있어서나 새로운 실천의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때문에 그는 이 여정에서 문화운동과 문화혁명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

소비에트러시아에서의 여정에서 그는 자기 내면의 심리뿐 아니라 사회심리를 관찰하려고 했다. 사회심리는 외부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의미한다. 이 반응은 외부에 대한 내면의 감정만을 일컫지 않는다. 인간은 행동으로 이를 구체화시키는데, 그 행동과 행동의 결과, 즉 문화 속에 응축된다. 취추바이는 소비에트러시아로의 여정에서 소비에트 정권 수립 후 격동하던 소비에트러시

1) 백영서, 《中國現代大學文化研究》, 大正文化社, 1994, pp.226-228 참고.

2) 我決不忘記你們, 我總想為大家闢一條光明的路. 我願去, 我不得不去, 我現在掙扎起來了, 我往餓鄉去了! 瞿秋白, 《新俄國遊記》, 《民國叢書》第50編80: 歷史地理類 影印本(上海: 上海書店, 1996/元 商務印書館影印本, 1922), p.3.

아의 국가와 사회의 변화에 반응하는 다양한 계급계층, 그리고 민족과 인종의 감정과 의식의 변화와 실천의 변화를 관찰했다. 그에게 소비에트러시아의 경험이 줄 수 있는 것은 사회주의라는 이념만이 아니라, 그 이념을 적용하고 실현하는 인간의 실천행위의 실제였다. 그리고 여기서 실천은 국가 정책이나 체제를 포함하여, 그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감정,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생활 속 다양한 행동을 포함한다. 이 모두는 총체적으로 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취추바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와 경제체제를 실현해 가는 사람들의 방법으로서 사회주의 문화를 살펴보려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특정한 이들의 문화가 아닌 혁명을 하고 국가를 만들고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다기다양한 사람들, 즉 주체로서 계급과 계층의 문화를 탐색하였다는 것이다. 그 문화의 건설과 구축 자체가 또한 이상의 실현이기도 했다. 《신아국유기新俄國遊記》과 《적도심사赤都心史》는 바로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의 '사람'의 '문화'에 대한 탐색을 담고 있었다.

그는 “‘문화’는 사람이 하는 바”³⁾라고 이야기했다. 이는 곧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토대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서 실천 행위를 의미했다. 역사적 단계에 상응하는 문화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고, 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실천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궁극적인 과제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는 문화혁명에 의한 세상의 변화를 바랐던 문화운동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물론 신사계급으로서, 東方古國의 어린 아이⁴⁾로서 자신의 계급적, 민족적 정체성과 함께 사회적 실천의 경험이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한편으로는 정치운동가이자 혁명가였다. 소비에트러시아로의 여정에서 문화의 관찰에 공을 들였지만, 소비에트러시아와 중국의 현실과 국제적 정세의 변화 속에서 사회변혁의 길로서 정치투쟁과 정치혁명으로 방법의 전환을 이루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5·4의 참여로부터 소비에트러시아로의

3) “文化(Culture)”是人類一切“所作”. 瞿秋白, <東方文化與世界革命>, 《瞿秋白文集·政治理論編》第2卷(北京:人民出版社, 2013), p.20.

4) 東方古國의稚兒 《赤都心史》, 《民國叢書》第50編80: 歷史地理類 影印本(上海:上海書店, 1996/元 商務印書館影印本, 1922), p.2.

여정, 그리고 귀국 후 공산당 참여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는 현실 인식 및 실천 방향과 관련하여 문화혁명과 정치혁명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해 나갔다. 그것은 취추바이 개인의 방법상의 전환이기도 하지만, 중국 사회주의 운동의 전략적 전환의 모색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는 다만 개인적인 경험과 객관적 세계의 변화 속에서 자신의 이념을 그에 맞게 변형시켰을 뿐이다. 그 변형은 현실의 변화 속에서 근본적인 사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방법의 전환이었으니, 곧 현실적 조건 하에서 실천과 투쟁의 전략적 변화였다. 그리고 이는 중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전개 과정이기도 하다. 그는 소비에트러시아의 여정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의 실상을 경험했기에, 이론을 교조적으로만 수용하던 초기 사회주의 혁명가들과는 다른 방향의 문제의식과 고민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가 문화혁명에서 정치혁명으로 전환하게 되는 과정과 논리를 살핌으로써 우리는 그 개인의 혁명 전략의 변화에서 나아가 중국 사회주의 운동의 양상과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고는 취추바이가 소비에트러시아로의 여정 이후 문화혁명에서 정치혁명으로의 전환을 이루었다는 전제 하에 《공산주의의 인간화(共產主義之人間化)》를 통해 러시아공산당의 결의를 소개하는 이면에 놓인 문제의식을 살피고 그것에서 중국 혁명 성격의 변화의 단초를 이해해 보려고 한다. 이어 《동방문화와 세계혁명(東方文化與世界革命)》을 통해 그의 문화와 문화혁명에 대한 그의 관점을 정리하고 그것이 현실 정세와 결합 속에서 정치혁명으로 전화하게 되는 논리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공산당 당 강령 초안(中國共產黨綱草案)》⁵⁾(이하 《당강초안》)을 통해 정치혁명 속 주체의 문제와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www.kci.go.kr

5) 1923년 6월 중국공산당제3차대표대회에 참가하면서 瞿秋白이 작성했다.

2. 공산주의 인간화의 의미 - 이상의 현실화

1921년 3월31일부터 4월15일까지 제10차 전 러시아공산당대회가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다. 대회에서는 레닌이 정치공작, 실물세로 잉여식량을 징수하는 문제, 당의 통일, 노동자 조직 등에 관해 보고하고, 스탈린과 지노비예프 등은 민족, 외교, 코민테른 등에 관해 보고했다. 마침 이 기간 《신보》 특과원으로 소비에트러시아에 머물고 있던 취추바이는 이 대회와 관련하여 동년 6월 22일에서 9월 23일까지 《신보》에 《공산주의의 인간화》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연재한다.

당시 소비에트러시아는 백군과의 내전으로 야기된 전시공산주의체제에서 벗어나려 시도하고 있었고,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적 위기에서 비롯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과 수교를 통해 국제적인 시민권을 얻고자 하던 시점이었다. 소비에트러시아 국내적으로는 다양한 계급과 계층의 이해가 표출되고 소비에트러시아 당국과 충돌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이 흔들리고 있었다. 국내외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신생 소비에트러시아로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공산주의라는 이상의 실현은 현실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한다면 공염불일 수밖에 없었다.

국가의 전복과 붕괴가 공산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일차적인 관문이었다면, 이제는 혁명 후 수립된 국가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지상의 과제가 되었다. 그들은 공산주의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타도의 대상이었던 계급 국가를 다른 계급 국가로 대체하려 했다. 또 그동안 적대적 관계였던 제국주의 국가에 대해서도 저항과 타협의 양면적인 태도를 보이려 했다. 이 모두는 공산주의 이념의 실현이 권력을 얻은 이들의 현실적 이해에 따라 조정되고 이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전략적 변화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신생 사회주의 국가의 존립이었다.⁶⁾ 러시아공산당은 당시 소비에트러시아의 유일한 수권당

으로서 당과 국가의 안녕과 발전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답을 내려고 했다. 1921년 제10차 러시아공산당대회 결의와 정책은 역사적 과정 속 소비에트러시아를 만들어 간 주체들이 제시한 해답의 일부였다.

이 문건은 제10차 전 러시아공산당대회의 논의 중 일부를 소개하는 것일 뿐이고 취추바이의 의견이라고 할 만한 것은 극히 적은 부분만 차지하고 있기에 이를 연구대상으로 주목한 이는 많지 않았다. 이 글을 독립적으로 분석하거나 연구한 예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취추바이 관련 연구 논문들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연구 논문은 아니지만, 천예사오(陳業劭)는 <공산주의의 인간화를 위해爲了“共產主義之人間化”>를 제목으로 하여 취추바이의 신문매체의 활동의 의미를 평가했다. 여기서 그는 《공산주의의 인간화》는 공산주의를 숭양한 가송⁷⁾으로 평가하고, 공산주의가 ‘인간’의 것으로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며 이를 밝힘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는 데 일조했다는 것으로 그의 신문매체 활동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를 ‘인간화’로 정의했다. 판자춘(潘家春)은 <초기 취추바이의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과 탐색初期瞿秋白對社會主義的認識與探討>에서 “공산주의는 ‘이상’이며,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이는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것이다”라는 언급을 인용하면서,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는 아름다운 이상에 ‘인간화’를 부여하는 과정으로서, 일종의 사회를 개조하는 위대한 실천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⁸⁾

이들은 공통적으로 취추바이가 공산주의의 인간화를 통해 이상으로서의 공산주의가 부정과 긍정의 양면성이라는 인간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것이 인간 사회에서 공산주의가 실천과 연계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공산주의는 완벽한 이상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 인간적인 이념이 된다. 취추바이가 말한 ‘공

6) 소비에트러시아와 러시아공산당의 대 중국, 대 동방 정책이 이념이 아닌 현실적 이익에 의한 것이었다는 관점에 관해서는 서상문, 《혁명러시아와 중국공산당 - 1917~1923》(서울: 백산서당, 2008) 참고.

7) 陳業劭, <爲了“共產主義之人間化”>, 《新聞戰線》第6期, 1985.6, p.16.

8) 潘家春, <早期瞿秋白對社會主義的認識與探討>, 《上海師範大學學報》第3期, 1985.10, p.105.

산주의의 인간화'는 이상으로서 공산주의가 문제적인 현실에서 인간의 실천 활동을 통해 실현되는 과정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취추바이는 인간의 외부세계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회심리에 주목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그가 말한 바 있는 인간화는 문화와 도덕의 구축, 그 사회화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러나 인간화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취추바이가 문화적인 것에서 정치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단초를 읽어 볼 수 있다. 그것은 취추바이가 러시아공산당의 결의 중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 왜 그것에 집중하는가,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 인간화는 무엇을 뜻하는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읽어 낼 수 있다.

취추바이는 러시아공산당의 결의를 민족문제, 외교문제, 공산당 조직 문제, 코민테른, 소결로 나누어 정리했다. 취추바이는 민족문제에 있어 제정 러시아와 소비에트러시아의 차이에서 출발한다. 제정 러시아 시대는 대 슬라브주의가 만연해 '대 러시아인' 즉 슬라브인들이 정치적 우위를 점하고 기타 민족에 대해 식민 정책을 취했지만, 10월 혁명 후 공산당은 민족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국외에서는 폴란드와 핀란드를 독립시키고 연방 내에는 각 민족을 재편성했다. 이때 러시아공산당은 민족의 평등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마르크스의 사회혁명 학설의 중요한 원칙을 실천하려 했고 그것은 곧 과도단계로서 '무산계급독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취추바이는 주지시키며 《공산주의의 인간화》를 시작한다.⁹⁾

그런데 그들이 이 원칙을 지켜야 하는 까닭은 각 민족의 발전이 불균등하기 때문이었다. 소비에트연방 내 다양한 민족은 대부분이 농업으로 생계를 도모하고 있었고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을 이룩하지 못한 상태였다. 취추바이는 이를 민족의 문명화¹⁰⁾ 정도가 상이한 까닭이라고 설명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각 어린(유치 단계의) 민족과 연합하여 자본주의 시대를 넘어 곧바로 공산주의의 건설로 나아간다"¹¹⁾라는 유일한 원칙을 따라 무산계급이 권력을 장악하

9) 瞿秋白, <共產主義之人間化>, 《瞿秋白文集·政治理論編》 第1卷(北京: 人民出版社, 2013), pp.180-181참고.

10) 앞의 책, p.180.

고 각 어린 민족을 각성시켜, 독립된 정신으로 자치 국가를 건설하게 하며, 그 후 직접 공산주의 원칙에 근거해 대기업식 농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즉, 공산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시의 불균등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연방 내 민족을 무산계급독재를 통해 자본주의적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육박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소비에트러시아에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발전과 대기업식 농공업의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었다.

러시아공산당은 생산력과 산업의 발전을 개별적이고 변덕스러운 자본가계급이 아닌 강력하게 조직되어 있고 목적의식적인 중앙집권적 독재 정부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다. 생산력의 발전과 조직화된 대기업식의 산업의 구축이 곧 무산계급의 이익이자 그 이익을 지키고 실현하는 것이며 이러한 무산계급의 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곧 무산계급독재의 존재 가치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사실 무산계급독재는 그 자체가 이념이나 이상이 아니며 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역사의 단계적 발전이 하나의 이념이자 목표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있을 것이고 무산계급독재는 계급사회에서 계급 없는 사회,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념적 주체는 추상화되고 실제적인 주체는 은폐되기 쉽다. 소위 '가장 선진적인 무산계급'¹²⁾으로서 전위는 무산계급의 이익을 추상화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무산계급독재가 이념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무산계급은 권력으로부터 소외될 위험이 있다.

한편 외교문제에서 있어서 소비에트러시아는 혁명 후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체제의 존립을 위협받고 있었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구유럽과 미국에서 노동자들과 사회주의 세력에 의한 혁명을 계획했다. 그러나 러시아 공산당은 당시 서구에서 경제 공황이 임박해 있다고 판단했다.¹³⁾ 이러한 변화

11) “提携各幼稚民族越過資本主義時代，而直達於共產主義的建設。” 앞의 책, p.181.

12) 最先進的無產階級 瞿秋白, <共產主義之人間化>, 《瞿秋白文集·政治理論編》第1卷(北京: 人民出版社, 2013), p.222.

13) 瞿秋白, <共產主義之人間化>, 《瞿秋白文集·政治理論編》第1卷(北京: 人民出版社, 2013), p.192.

속에서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새로운 시장과 원료 공급지를 확보하여 이 위기를 넘기고자 했는데, 광대한 국토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수준이 낙후한 소비에트러시아가 그 대상이 되었다. 이는 러시아공산당이 이용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이기도 했다.

그런데, “공업 진흥을 실행하는 것은, 러시아 현재의 상황에 보았을 때, 외자를 빌리지 않아, 시종 너무나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대기업의 공업제도를 하루 빨리 시행할수록 공산주의는 하루라도 먼저 실현될 수 있다.”¹⁴⁾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 국가와 통상 협약을 체결하여 외자를 이용, 목적 공업을 발전시켜 생산력을 증가시키고, 타국의 무산계급의 도움을 기다리는 한편, 외국의 공업품을 구해 농민과 농산품으로 교환하여 무산계급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¹⁵⁾이 필요했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을 산업발전에 투입하기 위해서 자본이 필요하던 소비에트러시아의 이해와 새로운 시장과 원료의 공급지가 필요했던 서구 제국주의의 이해가 일치하던 상황에서 러시아공산당은 서구 자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것은 그들이 현실적 요구에 따라 정치투쟁에서 경제투쟁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공산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자본주의 및 제국주의 국가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고자 했는데, 반은 자본주의와 반은 동방문화인 상황¹⁶⁾에서 세계혁명이라는 정치투쟁은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미래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경제투쟁으로 돌아서서 공산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주의의 경제적 토

14) 앞의 책, p.195.

15) 앞의 책, p.195.

16) 앞의 책, p.195. 제정 러시아 시대에 일정한 수준에서 산업의 발전과 자본주의의 발전을 이룩했지만, 소비에트러시아 시기에 인구 대다수는 농민이었다. 이들의 문화는 동방, 특히 중국의 농민들과 유사했다. 불충분한 자본주의 발전과 농업경제 및 농민문화의 존속은 취추바이가 보기에 중국과 다를 바 없었다. 다만 소비에트러시아는 정치혁명을 성공해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고 있었다. 이는 <東方文化與世界革命>에서 언급한 문화의 시간의 차이이기도 했다. 취추바이는 이 차이가 극복 못할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시간이 지나면 중국에서도 소비에트러시아의 문화를 실현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인간의 의지적 활동이 필요하며, 당시에 있어 그것은 정치투쟁이자 정치혁명이었다.

대, 즉 '농공업 대체도의 조직¹⁷⁾'을 구축하려고 한 것이다.

공산당 조직 문제에서도 취추바이는 러시아공산당이 변화된 현실 상황에 따라 전략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했다. 사회주의 국가 건설 초기 백군과의 내전으로 전시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소비에트러시아에는 전시의 강력한 중앙집권제가 필요했다. 그러나 전쟁이 종식된 상황에서 절대적 중앙집권제가 아닌 평시의 노동자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들은 무산계급독재에서는 전위정당이 소비에트에 대해 우위를 점하는데, 이것이 당과 인민의 분리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고, 평시에 이른 소비에트러시아에서는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 국내 다양한 계급의 이해를 수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¹⁸⁾

앞에서 설명한 외교와 경제 관계에서 보았듯이 경제정책은 외자를 도입하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들은 이를 통해 인민의 광범위한 물질적 요구를 충족하려고 했다. 또한 전시경제에서 벗어나 부분적으로 시장을 용인하고 국내 산업 발전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던 당시 상황에서 신자산계급이 나타나는 등 계급과 계층의 분화가 지속되고 있었고,¹⁹⁾ 이것은 다시 계급 간의 이해 충돌이라는 사회문제를 촉발하고 심화시키고 있었다. 국가의 안전과 보전을 위해서는 분열된 상황을 극복하고 정치적, 경제적 통일을 이룩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하에서 공산당과 인민의 융합이 의미가 있었다.

그들에게 민주는 각 계급과 계층으로 구성된 인민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이를 '노동자 민주주의'로 제시했다. 당 내 요원들은 하급자에서 상급자까지 모두 선거로 선임되고 모든 문제는 공개적인 연설과 토론을 거치고 전체의 투표로 의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중과 고급 당원들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 특히

17) 앞의 책, p.197.

18) 앞의 책, pp.198-200 참조.

19) 전시공산주의를 벗어나기 시작한 소비에트러시아에서의 새로운 계급분화와 사회적 문제는 瞿秋白의 《赤都心史》에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공산주의의 종지에 따르면 본래 진정 무산계급에 가까운 이들은 빈곤한 농민²⁰⁾이었고, 그들의 경제적 이익이 정치적으로 수용되고 해결되어야 했다. 새로운 국가와 사회의 건설이 대중의 지지와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러시아공산당은 대중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는 제한하면서 대중으로부터 권력의 정당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집중제로서 '노동자 조직 민주주의'였다. 당은 여전히 소비에트에 대해 영도권을 가지고 있되, 노동자와 농민 등 무산계급의 일부(선진 분자)를 당 내로 끌어 들여 그 내부에서의 민주적 참여의 과정을 확대하려고 했다. 당은 각성한 선진 분자들로 구성되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노동대중의 의식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선진적 무산계급, 즉 공산당의 영도라는 원칙을 버리지 않았다. 당원 수는 증가할 필요가 있지만, 선진적 무산계급으로 고양되어야 했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실행이 당원의 지식과 각오의 정도를 높임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정치와 민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원을 증가시키되 이들을 교육시키고 질적으로 고양시킴으로써 대중의 직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에 대한 요구를 정치적이고 목적의식적인 활동으로 전환시켜야 했다. 그들은 조직화된 당원의 집권을 통해 민주주의와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²¹⁾ 여기서 말한 질적인 고양에는 노동대중의

20) 瞿秋白, <共產主義之人間化>, 《瞿秋白文集·政治理論編》 第1卷(北京: 人民出版社, 2013), p.199.

21) 瞿秋白, <共產主義之人間化>, 《瞿秋白文集·政治理論編》 第1卷(北京: 人民出版社, 2013), pp.199-200 참고. 이는 오늘날 중국의 민주집중제와 동일하다. 오늘날 중국의 방법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민주를 인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에 두지 않는다. 대신 당내 민주주의의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려고 하고 있으며, 공회나 농회 등 인민의 조직을 당의 영도 하에 두려고 한다. 심지어 시민사회 역시 통제 하에 두려고 한다. 민주집중제는 '당-국가'체제에서 의미가 있다. 당이 곧 국가이기 때문에 당내의 민주적 절차와 체제의 마련은 곧 국가의 민주적 절차와 체제의 마련과 동일시 될 수 있다. 중국에서 국민당이나 공산당이나 모두 적어도 이 시기에는 국민혁명을 통해 당-국가체제를 구축하려고 했고, 그래서 공히 민주집중제를 '민주'로 연결시켰다. 중국은 현재도 당-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개혁과 민주화의 문제를 '당내민주', 즉 민주집중제의 확립으로 바라본다. 중국의 당내민주에 대해서는 조영남·안치영·구자선, 《중국의 민주주의》(서울: 나남, 2011) 참고.

도덕의 제고도 포함되어 있었다. 취추바이는 당시 노동자와 당원들이 생산력 발전을 위해 추가로 “적색 토요일”, “요일제”와 같은 당원의 노동참여제도와 같은 사회주의적 미덕을 소개하기도 했다.²²⁾

이러한 내용들은 소비에트러시아에서 이상이 어떻게 현실을 만나 변형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러시아공산당은 소비에트러시아가 제국주의를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내적으로 소비에트정부가 낙후된 민족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산계급 독재를 통해 그들의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발전을 이끌어 공산주의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했다. 국제적으로는 기존 마르크스주의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민족해방전쟁을 주요한 방침으로 취했다. 제국주의국가와 식민국가의 결합을 끊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소비에트 정권의 후방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가 작용한 것이다. 경제나 외교에 있어서도 생산력 발전을 위해서 서구 자본을 들여와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에 따라 서구 제국주의 국가와 수교하고자 했다. 그들은 혁명을 통해 국가를 타도했지만, 접수한 국가를 무산계급독재를 통해 강화하고 유지하려고 했다. 강력한 규율로 조직된 선진 노동자들의 조직으로서 당이 국가를 장악하는 무산계급독재의 국가의 국가자본주의를 통해 대중의 욕망을 해결하고 그를 통해 그들의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러한 러시아공산당의 결의와 논의들은 중국의 문제이기도 했다. 시간상의 차이가 있을 뿐 중국에서 실현되어야 할 것이고, 또 실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민족 문제에 있어서 문명화 정도의 차이, 자본주의에 육박하는 생산력의 발전, 경제와 정치의 전국적인 통일, 무산계급 독재와 민주주의 문제 등은 중국이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었다. 특히 여기서 다룬 민족, 외교, 노동자 조직, 코민테른에 관한 문제는 다시 민족, 경제(민생), 정치(민주와 외교)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는 중국에서는 공산당뿐 아니라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자들이 정치적 혁명을 통해 개혁하고자 했던 세 가지 범주이기도 했다. 민족의

22) 瞿秋白, <共產主義之人間化>, 《瞿秋白文集·政治理論編》 第1卷(北京: 人民出版社, 2013), p.216.

정치적 독립과 국가의 수립이라는 문제,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해결하면서 국가의 통일된 경제체제를 수립하는 문제, 국가의 정치적 통일과 통일된 국가 체제 및 민주 실현의 문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다시 민족과 민주 의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된 것은 소비에트러시아에서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과도적 단계로서 사회주의 건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사회주의 문화의 건설로 읽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비에트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공산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총체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주의적 정치, 사회주의적 경제, 사회주의적 사회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도덕과 방법, 즉 사회주의적 문화까지 결합된 것이었다. 그 모두가 소비에트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던 공산주의의 인간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비에트러시아에서의 일이며 중국이 마주한 현실은 소비에트러시아와는 차이가 있었다. 결정적으로 중국에서는 사회주의적 문화의 건설은 커녕, 통일 국가 자체가 진행 중인 과제였다. 쑨주바이에게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와 정치, 사회와 문화가 역사적으로 유사했고, 그래서 지향점과 문제의식이 일치하나, 역사적 현실의 상이함으로 인해 이상과 이념을 실천하는 길은 달라져야만 했다. 쑨주바이 관점에서 말한다면, 중국에서는 더 많은 인간화가 필요했던 것이다.

러시아공산당이 결의하고 시행하려 했던 민족의 통일과 연대, 사회주의 경제적 토대의 구축과 발전, 정부와 정치 체제의 구축 등 사회주의 국가의 총체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은 쑨주바이의 관점에서는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토대로서의 사회주의의 문화였다. 그런데 그 전제는 정치권력의 획득을 통한 국가의 전복과 접수였다. 그리고 새로이 수립된 국가는 무산계급독재를 통해 이러한 조치를 실행해야 했다. 결국 공산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문화적 실천은 소비에트러시아가 수립되고 러시아공산당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쑨주바이가 주목한 그 정책들은 중국에서도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는 정치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중국은 러시아와 상이

한 문명화의 정도를 보이기엔 중국에서 전개되어야 할 혁명과 정치는 소비에트 러시아와는 다른 단계의 것일 수밖에 없었다.

3. 문화혁명에서 정치혁명으로

취추바이는 궁극적으로 중국에 사회혁명과 문화혁명이 이루어지기 바랐다. 그러나 문화운동과 문화혁명은 이 시기 이를 수 없는 이상과 같은 것이었다. 취추바이는 문명화 정도에 따른 민족의 불균등 발전이라는 관점을 받아들인다. “동서문화의 차이는 시간상의 차이일 뿐이다. 인류사회의 발전은 자연조건의 제한으로 생산력 발전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종 경제단계의 과정은 일치하지만 서로 비교한다면 각국 각 민족의 문화는 같은 시대에 전후의 차이가 나타난다”²³⁾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은 영원히 낙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에는 역사적 발전 법칙을 따라 다른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로도 읽을 수 있다. 다만 그는 여기에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 믿었다.

그런데 취추바이는 역사의 발전을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로 전환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취추바이는 자연조건의 제한으로 각 민족의 생산력의 발달 양상이 다르고 그래서 경제발전의 단계도 다르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정치형태도 달라지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달라진다. 취추바이는 경제적 토대로부터, 정치제도, 사회의 삶의 방식 이 모두를 문화로 보았고, 이 문화를 역사적 단계로 보았다. 이는 그의 동방문화의 성격 규정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는 동방문화의 성격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 그 첫 번째가 종법사회의 “자연경제”였다. 중국의 경제적 토대는 근대적 공업이 아닌 전근대적 가내

23) 瞿秋白, <東方文化與世界革命>, 《瞿秋白文集·政治理論編》 第2卷(北京: 人民出版社, 2013), p.14.

수공업 형태의 중세 식 수공업에 정체되어 있었다. 자연경제 하에서는 가족 내 자급자족에 필요한 정도의 물품만을 생산하여 씨족 공동체의 평분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재화를 만들지 않는다. 시장도 자본주의에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않았기에 재화를 생산한다 해도 유통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경제 체제 아래에서 인간의 물질적 욕망은 충족될 수 없었다. 때문에 전통 사회에서는 오히려 물질생산과 물질적 욕망은 부정적으로 치부되었다. 자연경제의 한계를 넘어서서 물질적 욕망을 채울 수 없고 자연경제를 토대로 하여 형성된 정치체제는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자연경제가 유지되는 한 근대적 산업과 생산력의 발전은 요원하고, 중국은 다른 사회로 나아갈 수 없었다.²⁴⁾

두 번째 특징은 기형적 봉건제도의 정치형식이었다. 중국은 가족, 국가, 천하 모두가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전근대의 중국에서 가족의 관계는 사회와 국가, 세계로 확장된다. 다만 중앙의 전제군주로 권력이 수렴된다고는 하나, 수많은 성 씨의 사적 권력이 산개되어 있었다. 각각의 씨족의 수장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적 권력 구조가 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가족 단위의 자급자족적 소농경영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때문에 전통 왕조체제의 국가는 정치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분열되어 있었던 것이다. 취추바이는 이것을 불완전한 중앙집권제라고 말했다.²⁵⁾

그는 신해혁명은 중법사회의 불완전한 중앙집권제를 분쇄했지만 본격적인 자산계급의 혁명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첫째는 봉건제도의 여세가 남아 있고, 중국 자산계급의 발전 수준은 유치하며, 통일군주가 몰락했으니, 각 지역별로 경제가 발전하고 외세가 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²⁶⁾ 전통적인 소농경영의 농업경제체제와 중법적 가족 체제는 정치적 변화 속에서 붕괴되어 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그것은 자연경제라는 경제적 토대가 여전히 온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 이 토대를 포함하여

24) 앞의 책, pp.15-16 참고.

25) 앞의 책, pp.16-18 참고.

26) 앞의 책, p.17 참고.

정치체제까지를 유지하는 것이 특정한 세력에게는 이익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 세력이 곧 군벌과 그 뒤에 숨은 제국주의 세력이었다. 이들은 각지를 할거 하면서 독립된 정부와 경제를 운용했다. 전제적 집권체제는 붕괴되어 가고 있던 정치와 경제는 새로운 권력자들에 의해 분열되어 있었다. 그래서 봉건제도의 여세를 제거하고, 자산계급을 발전시키며, 외세로부터 독립되고 통일된 경제체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곧 자산계급 혁명이었다. 즉, 분열이 아닌 중앙집권의 진정한 통일 국가와 정치체제를 수립하는 것과 새로운 계급을 분화시킬 수 있는 생산력과 산업의 발전, 그리고 독립 국가의 통일된 경제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자산계급혁명이었다.

세 번째, 동방문화란 식민지로서 국제적 지위였다. 제국주의는 봉건제도를 적대시했지만 국외의 약소민족을 침략하면서 종종 약소민족 내부의 봉건제를 돕는다. 그 까닭은 자신들의 식민지 국가에서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소위 강국은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적 요구에 따라 정치적, 군사적으로 침략 음모를 꾸미게 되고 식민지의 경제가 자신들의 착취 정책에 적합하도록 힘쓰게 된다. 그래서 식민지 내에서 그들의 지배를 대리하는 정파와 계급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들 약소민족은 완전히 제국주의에 복속되고 만다. 이처럼 외세는 봉건군벌과 함께 공공연한 야만정책으로 중국 사회를 봉건제로 퇴화시킨다. 취추바이는 이에 대해 경제적 독립이 없으면 제국주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고, 경제적 독립과 발전에 있어 민족자본가 계급이 역량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²⁷⁾ 그는 이처럼 자연경제 상태에서부터 파생된 소농 중심의 농업 생산 및 가내수공업과 그에 기반을 둔 전제적 중앙집권체제와 예측된 식민지 상태를 모두 동방문화로 규정했다.

중국은 이 동방문화에서 벗어나 다른 문화로 나아가야 하는바, 생산력과 산업을 발전시켜 물질적 욕망을 충족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 체제를 마련하고 아울러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통일된 국가가 수립되어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적 발전은 주체의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활동에 의해

27) 앞의 책, pp.15-20 참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이 의식적, 의지적 활동이 정치였다. 주체는 문화적 停滯를 야기하는 이들에 맞서 싸워야 했으며, 그 결과로 정치권력을 획득하여 다른 문화를 구축해야 했다. 취추바이는 이에 따라 정치적 투쟁의 목표와 대상을 제시했던 것이고, 그것은 곧 낡은 경제체제와 전제적 중앙집권의 정치체제이며, 역사적 발전을 방해하는 제국주의와 그 주구로서 군벌과 매판자본이었다.

신해혁명으로 인해 야기된 왕조의 교체는 국가의 통일을 파괴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각 지방은 군벌이 할거하여 자신들의 지역에서 독립적인 경제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고, 외세는 이를 이용해 중국을 분리 통치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지역에서 군벌은 商民, 즉 민족자산가를 억압할 뿐 아니라 농노제식의 노역으로 농노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었다.²⁸⁾ 기형적 정치체도가 경제를 봉건 상태로 후퇴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은 이 때문에 자연경제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인간의 물질적 욕망은 해결될 수 없었다. 신해혁명을 통해 전제적 중앙집권체제가 붕괴되었지만, 군벌의 전국적 할거로 국가는 통일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었다. 그것이 바로 '봉건'이었다.²⁹⁾

여기서 취추바이가 언급한 '봉건'은 경제적 토대와 정치적 상부구조가 결합된 사회성격으로서의 봉건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통일된 근대 국가를 수립하지 못하고 각지로 권력이 나뉘어 있는 분열된 정치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취추바이는 단일한 경제체제와 통일된 정치권력을 마련하지 못한 당시의 중국 상황을 半 봉건적의 문화로 보았다. 당시 중국의 시급한 과제는 이러한 문화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발전을 도모하고 단일한 시장, 단일한 경제 체제를 수립해야 했고, 정치적으로 군벌의 분열을 극복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치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현실 과제였다.

취추바이는 자산계급 혁명을 통해 중앙집권을 구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된 경제체제가 건설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구축되어야 소련과 마찬가지로

28) 앞의 책, p.17 참고.

29) 앞의 책, p.17 참고.

지의 경제발전을 통해 국내의 노동계급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었다. 또한 그렇게 됐을 때야 비로소 중국에서도 세계혁명으로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고, 무산계급독재를 통해 도덕의 평민화와 과학의 사회화를 이루는 문화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³⁰⁾

취추바이는 문화를 인류의 모든 “하는 바”로 정의하며, 이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생산력의 상태요, 둘째는 이 상태를 토대로 이룩된 경제관계이며, 셋째는 이 경제관계로 인해 형성되는 사회정치조직이고, 넷째는 이 경제 및 사회정치조직에 따라 정해지는 사회심리와 이러한 사회심리를 반영하는 각종 사상체계이다.³¹⁾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인간이 만들어 낸 생산력과 생산관계, 그리고 정치체제와 사회심리의 총체가 된다. 또한 공산주의는 역시 상기한 네 요소의 총체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변화는 문화의 변화였다. 그래서 한 사회가 다른 사회로 발전은 이러한 문화의 지속적인 건설의 과정이자 결과였다. 즉, 발전은 문화혁명이 일어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현실과 세계정세의 변화를 고려할 때 사회혁명과 문화혁명은 미래의 일로 연기되어야 했다. 도덕의 평민화와 과학의 사회화는 곧 공산주의의 문화로서 이는 공산주의 단계에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당장은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 낼 정치적 의지의 실천이 중요한 문제였다. 이는 당시로서는 소비에트러시아와 러시아공산당이 말하는 세계혁명³²⁾이이면서, 그

30) 앞의 책, pp.22-23 참고.

31) “文化(Culture)”是人類之一切“所作”: 一、生産力之狀態, 二、根據於此狀態而成就的經濟關係, 三、就此經濟關係而形成的社會政治組織, 四、依此經濟及社會政治組織而定的社會心理, 反映此種社會心理的各種思想系統. 앞의 책, p.20.

32) 앞에서 보았듯, 소비에트러시아에서는 취추바이가 총체적인 문화혁명이 진행되고 있었다. 본래 소비에트러시아의 경제발전 상황과 정치 체제는 세계대전의 와중에 일정한 자본주의적 발전을 이룩했으면서 여전히 농업경제적인 요소가 남아 있던 중국과 유사했다. 그러나 소비에트러시아는 정치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했고, 문화혁명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었다. 당시 중국에서는 소비에트러시아의 문화혁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스탈린과 러시아공산당은 자본주의적 선진 문명국이 낙후된 민족 자본주의적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기대와 달리 서구문명국이 제국주의화되어 낙후 민족을 식민화함으로써 그들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고 보았다. 대신 그들은 제국주의에 기대됐던 역할을 소비에트러시아의 사회주의 국가가 대신할 것이

분업의 일환으로 중국에서는 자산계급의 민주혁명이었던 것이다.

4. 혁명과 주체의 문제

《당강초안》에는 취추바이의 당시 정세에 대한 판단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현 단계의 혁명의 과제가 집약되어 있었다. 이것은 앞에서 다루었던 취추바이의 인식과 논리의 연장선에 있다. 그는 근대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제국주의를 만들어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제국주의를 중국의 기형적 현실을 만들어 낸 원흉으로 제시했다. 제국주의의 최종 목적은 식민지를 제국주의의 유기적 경제 체제의 부속물로 만들고 중국의 경제생활과 정치생활을 지배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중국의 옛 경제를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외국 대다 자본의 상품이 중국시장을 점령함으로써 중국은 대공업의 발전 가능성을 잃게 되었고, 제국주의 국가의 원료 공급기지로 전략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구시대의 경제적 토대인 중법사회의 농업이 어지러워지고, 중국 내 민족자산계급과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소비에트러시아가 제국주의국가들처럼 직접적으로 해당 국가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이끌 수는 없었다. 이는 이념적인 차원뿐 아니라 현실적인 경제력에 있어서도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뒤편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미국과 일본 등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만이 중요했다. 이러한 반제투쟁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제국주의와 적대적이고 유력한 세력은 누구나 연대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식민지 국가의 소위 민족자산가계급도 연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소비에트러시아와 러시아공산당은 중국에서도 처음에는 북경정부를 통해 일본을 막아내려고 했었고, 이 즈음에 와서는 국민당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었다. 러시아공산당이 말하는 세계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으로서 이는 자본주의가 발달한 서구에서 일어나는 것이었다. 중국 등 제국주의의 압박을 받고 있는 낙후된 농업국가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으로서 세계혁명이 일어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이들 국가에서는 제국주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중요했고, 그들의 이해와 일치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의 반제투쟁의 활성화였다. 비록 그들은 이를 세계혁명의 틀에서 이야기하고 취추바이 등 중국공산당과 사회주의자들도 그렇게 인식했지만, 서구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반제투쟁은 세계혁명이 아니었다. 다만 이것은 어쨌든 중국에게는 세계에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이였다. 이에 관해서는 서상문, 《혁명러시아와 중국공산당 - 1917~1923》(서울: 백산서당, 2008) 참고.

그들에 의한 공업의 정상 발전이 방해를 받게 되었으며, 이와 연동된 노동자계급의 분화와 발전 역시 가로막히고 말았다. 한편 옛 경제체제가 몰락함으로써 전통적인 수공업노동자와 농민 등 소생산자들은 몰락해 산업예비군이 되어버렸고 이로써 노동자, 농민, 수공업자, 민족자산계급 등등 이 시기 중국 인민대중이 모두 제국주의와 군벌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체제로부터 고통 받고 있었다. 제국주의는 중국이 이러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중국 내 소수의 관료와 극소수의 매판재벌을 지원하게 되고, 이는 다시 대다수 중산계급과 노동평민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³³⁾

제국주의와 그들의 대리인인 군벌과 매판에 의한 상업경제시장이 발전할수록 생산방법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중법사회의 붕괴는 지연되었으며, 제국주의로 인해 중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중법사회의 낡은 경제체제도 완전히 떨쳐 버리지 못하며 각각의 열등한 요소가 뒤섞인 기형적 경제체제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 기형적 경제체제로 인해 《동방문화와 세계혁명》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상누각의 전통적 중앙집권체제가 몰락했음에도 근대적 중앙집권체제는 수립되지 못하고 군벌이 지역을 분할 통치하는 기형적 정치체제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동방문화와 세계혁명》에서 그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를 총체적인 문화로서 규정하였다. 자본주의적 생산력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있고 자본주의적 정치가 있으며 자본주의적 사회심리, 객관적 세계에 대한 반응으로서 방법이 있다. 중국은 자본주의적 생산력도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고, 따라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다. 또 그에 걸맞은 정치체제가 탄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소비에트러시아에서 만난 이들이 보여주었던 사회심리를 중국에서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소비에트러시아에서는 사회주의 국가가 세워졌기에 경제적 토대의 구축과 생산력의 발전, 정치체제의 수립, 그리고 사회주의적 도덕과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루어갈

33) 瞿秋白, <中國共產黨綱草案>, 《瞿秋白文集·政治理論編》 第2卷(北京: 人民出版社, 2013), pp.111-112 참고.

수 있었다. 중국은 제국주의와 군벌로 인해 이러한 길이 막혀 있었다. 군벌은 국가의 정치와 경제생활을 분열시키고, 중국의 민족과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바, 중국이 새로운 문화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군벌에 의한 분열과 분리의 정치를 제거하고 국가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했다. 이때 제국주의와 군벌과 이해를 달리하는 민족자산계급의 정치집단에 기대어 정치적 공간을 확장해야 하는데, 그것이 곧 국민혁명이었던 것이다.

시급한 정치과제로서 국민혁명은 반제와 반봉건을 통해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쟁취하여 이 두 세력이 막아 놓았던 통일된 경제체제와 정치체제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결국 이를 실현할 주체에 대한 고민과 연결되었다. 앞에서 보았듯 중국은 자본주의적 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때문에 근대적 계급이 충분히 분화되지 않았다. 경제적 토대가 구축되지 않아 야기된 기형적 정치체제가 다시 이를 악화시키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혁명이 연기되고 정치혁명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었듯, 현재의 투쟁의 주체는 자산계급의 선진분자들이었고 서서히 분화되던 노동자계급과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농민계급은 그들과 연대하여 시급한 정치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다만 이들은 연기된 사회혁명과 문화혁명을 실현할 주체이기에 현재의 국민혁명에 있어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이었다.

취추바이는 무산계급을 국민혁명을 철저하게 밀고 갈 수 있는 유력한 세력으로 제시했다. 자산계급은 국민혁명의 단계에서 머물지만, 무산계급은 국민혁명이 열어 놓은 정치적 공간에서 다음의 역사적 단계로 나아가는 근본적인 혁명으로 이끌 세력이었다. 이에 더해 그는 농민이 국민혁명의 성패에 있어 주요한 세력임도 밝혔다. 무산계급은 국민혁명의 과정에서 자산계급을 독축하고 농민을 각성시키고 연합시켜 국민혁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평민의 민권을 실현하고 정치상의 자유와 민족독립을 이룩하는 책임을 짊어져야 했다. 취추바이는 국민혁명에 참가하되 그 능력을 집중시켜 정치 투쟁에서 위치를 획득하고 세계 사회혁명 과정에서 세계 무산계급과 각 피억압 민족과 연대함으로써 정치혁명에서 사회혁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단축할 수 있다고 보

왔다.³⁴⁾

취추바이는 《당강초안》에서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의 착취에 반대하는 투쟁을 제국주의와의 투쟁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다.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를 반대해야 하지만, 무정치적 자유권만으로는 경제투쟁이 그 경제 조직을 발전시키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는 노동자계급이 정권을 획득함으로써 생산 수단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최고의 목적에 이를 수 있음을 적시했다. 그래서 중국 무산계급은 스스로를 ‘국민혁명’에 한정시켜서는 안 되었다.³⁵⁾ 즉, 그는 중국의 현실 상황에서 국민혁명을 정치혁명으로 취해야 하지만, 이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혁명이자 문화혁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5·4를 거쳐 국민혁명으로 나아가던 이 시기에 5·4를 통해 발견된 평민 대중의 역할이 더욱 구체화되어 갔다. 평민의 역량을 문화에서 찾으려 했기에 취추바이는 소비에트러시아에서도 평민의 사회심리를 살펴보려 했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 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문화였다. 중국에서는 역사적 단계로서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는 과도단계의 수단으로서 정치혁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 정치혁명은 광범위한 대중을 동원하는 혁명이었다. 혁명이 대중의 욕망을 해결하고 그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전망을 보일 때, 대중은 이에 참여할 수 있었다. 소비에트러시아의 예에서 보이듯 대중의 물질적 욕망을 해결할 수 있을 때, 집권 세력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을 발전시키고 통일된 시장을 세워야 했다. 그러할 때 민생이 해결될 수 있고 대중의 물질적 욕망이 충족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대중의 이익은 추상화되었다. 대중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욕망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치혁명과 그를 통한 체제의 수립이 곧 그들의 이익이며, 또 그들의

34) 앞의 책, p.115 참고.

35) 앞의 책, pp.116-117 참고.

이익을 보호하는 것임을 설파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의 보호가 그들 스스로의 조직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도와 누군가의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될 때 문제가 된다. 그 누군가는 이를 통해 궁극적인 변화를 위한 총체적인 변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수단은 이념화된다. 노동자계급과 농민계급은 국민혁명의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이고, 선진 무산계급의 집권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지만, 바로 그 선진 무산계급은 이를 이념으로 만들어 버린다. 국가의 전복이든, 건립된 국가의 안전과 질서이든, 선진 무산계급은 당-국가의 체제 속에서 현실을 이념화하고 이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영속화한다. 평민이든 국민이든 대중을 내세우고 그들의 이해를 보호함으로써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정작 이들을 소외시켜버리고 마는 것이다.

신해혁명이 실패한 이유는 소수의 엘리트의 혁명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반해 국민혁명은 반제와 반봉건의 혁명으로서, 경제적으로 통일된 시장과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민두기는 신해혁명에서 국민혁명으로의 전환을 엘리트의 공화제가 아닌 민주집중제로의 전환으로 보았다.³⁶⁾ 전자가 왕조체제를 붕괴시켰으며 결국은 군벌이라는 엘리트들의 권력의 획득으로 귀결되었던 반면, 국민혁명³⁷⁾은 평민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참여

36) 이에 관해서는 민두기, <中國國民黨의 '改進黨' '改組'>, 《中國初期革命運動의 研究》(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참고.

37) 孫文은 국민당 일당의 혁명을 통해 전국을 통일하고, 당-국가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1924년 발표한 <북상선언北上宣言>에서 국민혁명의 목표를 독립과 자유의 국가를 수립함으로써 국가와 민중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 말하고 그 내용의 요지를 재의 정책으로서 불평등조약 및 특권을 폐지하고 외채의 성질을 변화시킴으로써 열강이 이러한 외채를 이용하여 중국을 식민지의 지위로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대내정책으로는 중앙과성의 권한을 확장함으로써 국가의 통일과 성의 자치를 이루며,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농공상의 실업 단체의 발달을 도와 경제와 교육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라 정리했다. 또한 이에 근거하여 국민혁명의 순서를 정리했다. 우선 국제적 평등의 지위에 오른 후에 경제와 모든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하게 된다. 둘째, 실업의 발전을 통해 농촌경제가 개량되고 노동농민의 생계가 개선될 수 있다. 셋째,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함으로써 노동계급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단결력이 제고되고 개선의 기회를 갖게 된다. 넷째, 농업업이 발달함으로써 인민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상업이 비로소 번성할 수 있는 동기를 갖게 된

에 바탕을 둔 혁명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집중제로서 러시아공산당에서 제기했던 노동자 조직 민주주의의 문제의식과 유사했고 오늘날의 중국이 정치 개혁의 과제로 제시하는 민주집중제와도 유사했다.

그러나 국민당은 혁명의 진행 과정에서 대중의 발호에 놀라서 결국 이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했다. 공산당의 인사들은 국민당과 같이 대중을 탄압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노동자와 농민 등 평민의 정치적 진출을 '민주'의 이름으로 설파하고 요구했으나, 그들 역시 대중을 주체가 아닌 수단으로 보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제까지 중국 근대의 개혁을 이끌어 온 이들은 대부분 지식인들이었다. 5·4를 통해 평민이 발견됐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식인에 의한 발견이었다. 그들은 평민을 발견하고 혁명의 주도계급으로 무산계급을 이야기했지만, 이는 관념적 인식에 지나지 않았다. 중국공산당을 이끌던 인사들 역시 지식인의 눈으로 평민을 바라보았다. 평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정치적으로 각성할 필요가 있었으나, 평민의 각성은 역사발전의 법칙을 인지하고 있는 선진 무산계급의 영도로 당-국가의 틀에서 조직되어야 했다. 평민은 스스로 각성하고 단결하며 저항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선진 무산계급은 대중을 무산계급독재의 영향력 아래 두고자 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취추바이의 《당강초안》이 천두슈陳獨秀에 의해 수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취추바이는 자산계급혁명은 '농민의 참

다. 다섯째, 문화 및 교육 등의 문제가 이에 이르러 공담이 아닌 현실이 된다. 경제가 발전함으로써 지식의 능력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고 국가가 부유하게 되는 힘이 증식됨으로써 문화사업 및 교육을 위한 자금이 마련될 수 있다. 모든 지식계급의 실업문제와 실학문제가 해결될 단계를 얻게 된다. 여섯째 중국의 법률은 이로 인해 불평등조약이 폐지되고 중국의 영토에 보급될 수 있다. 모든 조계는 폐지되고 그런 후에 파괴를 꾸미는 반혁명 세력의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孫文의 이러한 국민혁명의 구상은 앞에서 살펴 본 러시아공산당의 당대의 국가 정책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강력한 중앙집권식의 국가를 수립하고 당-국가의 체제 속에서 통일 국가의 통일 정부의 주도로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인민의 물질적 욕망을 해결하는 한편으로 사회문화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궁극적 이상은 다르지만 이념과 이상의 실현의 출발을 정치 혁명에서 찾는 것에서 러시아공산당과 중국 국민당의 생각이 접근했던 것이다. 원문은 <https://baike.baidu.com/item/北上宣言/480132> 참고.

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不得農民參加革命不能成功)' 초고를 작성했지만, 천두슈는 이를 '농민이 참여가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다(不得農民參加革命也很難成功)'로 수정했다.³⁸⁾ 천두슈는 자산계급혁명에서 농민의 참여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아니라고 보았던 것이다.

중국의 현실에서 자산계급혁명이 현재적 과제였지만, 또 그 현실에서 농민은 이의 주요한 주체였다. 취추바이가 《공산주의의 인간화》에서 민족의 문제를 가장 앞에서 다루었던 이유도 그것이 농민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농민을 소농경제, 즉 자연경제에 국한된 존재로서 봉건사회의 공범자로서만 인식했다면 이러한 사고는 나올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농민을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서 문화적 주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노동자의 대공업과 마찬가지로 공업화된 농업의 참여자이자 새로운 사회의 주체였던 것이다. 농업 공동체는 그에게는 지난 봉건 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공업화된 대규모 농업으로서 공산주의문화의 일부분이 될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그들은 당대 현실 정치투쟁의 주체로서뿐 아니라 공산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주의 사회의 문화의 주체이기도 했다. 비록 문화혁명과 사회혁명은 미래로 연기되고 현실의 문제로 국민혁명의 실현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지만, 그는 주체의 문제가 이상으로서 미뤄질 것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취추바이에게 있어 궁극인 발전은 문화의 변화와 발전이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었고, '현실'에서는 과도적이고 역사적인 도구와 방법이 오히려 절대화되었다. 무산계급독재가 현실적 방법이자 도구이지만 결국 이념화되고 이로 인해 주체가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권력은 수단과 방법을 절대화 이념화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한다. 그럼으로써 애초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은 사상되고 말았다.

www.kci.go.kr

38) 瞿秋白, <中國革命中之爭論問題 第三國際還是第零國際?>, 《瞿秋白文集·政治理論編》第4卷(北京:人民出版社, 2013), p.477.

5. 결론

취추바이는 공산주의라는 이념 혹은 이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실에 따라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것이 곧 인간화였다. 취추바이가 여행했던 사회주의 국가 소비에트러시아에서는 공산주의의 실현을 위해 현실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었다. 그것은 민족, 경제, 정치, 외교 등 국가 정책뿐 아니라 사람들의 도덕적 질서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사회주의 문화의 수립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 문화의 건설은 정치를 통해 진행되고 있었다. 소비에트러시아와 중국의 문화적 단계는 현실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필연적으로 동일한 발전의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 다만 처한 현실에 따라 그 전략은 바뀌어야 했다.

중국에서는 전근대 국가체제가 무너졌을 뿐 전근대의 문화는 여전히 온존해 있었고, 다음 단계의 문화는 도래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제국주의와 군벌이 정치를 통해 그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근대의 문화를 완전히 폐절하고 다음 단계의 문화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국가 수립 이후의 당과 국가의 정책을 통한 문화의 건설을 모색하던 소비에트러시아와 반동적 세력을 정치적으로 타격하고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는 정치혁명이 시급했다. 문화혁명은 궁극적인 것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이었지만,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중국의 현실에서 시급한 것은 반제와 반군벌의 민족혁명과 민주혁명이었다. 전자는 세계혁명의 분업이자 민족의 독립을 실현하는 투쟁이었고, 후자는 이와 연계된 국내의 군벌과 매판자본을 반대하여 민주적이고 통일된 정치체제와 통일된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이루어진 뒤에야 문화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다만 취추바이는 현재의 정치혁명에서나 궁극적인 문화혁명에서나 이를 실천할 주체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들은 누군가의 영도에 의해 조직되는

이들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직하고 활동할 주체였다. 그러나 집권자는 과도적 단계 혹은 수단으로서 현실의 정치적 실천을 이념화하고 영속화하려고 한다. 취추바이는 이상의 실현을 위한 정치화로서 인간화로 이야기했다. 결국 정치투쟁, 정치혁명은 과도적 수단이었다. 그 이면에는 스스로 조직하고 싸우는 주체에 의해 사회적 실천으로서 문화혁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었다.

< 參考文獻 >

- 瞿秋白, 《新俄國遊記》, 《民國叢書》第50編80: 歷史地理類 影印本, 上海: 上海書店, 1996/元 商務印書館影印本, 1922.
- _____, 《赤都心史》, 《民國叢書》第50編80: 歷史地理類 影印本, 上海: 上海書店, 1996/元 商務印書館影印本, 1922.
- 백영서, 《中國現代大學文化研究》, 大正文化社, 1994.
- 서상문, 《혁명러시아와 중국공산당 - 1917~1923》, 서울: 백산서당, 2008.
- 조영남·안치영·구자선, 《중국의 민주주의》, 서울: 나남, 2011.
- 瞿秋白, 《共產主義之人間化》, 《瞿秋白文集·政治理論編》第1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3.
- _____, <東方文化與世界革命>, 《瞿秋白文集·政治理論編》第2卷, 北京: 人民出版社, 2013.
- _____, <中國共產黨綱草案>, 《瞿秋白文集·政治理論編》第2卷, 北京: 人民出版社, 2013.
- _____, <中國革命中之爭論問題 第三國際還是第零國際?>, 《瞿秋白文集·政治理論編》第4卷, 北京: 人民出版社, 2013.
- 張麗, 《瞿秋白文化思想研究》, 陝西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16.
- 陳業劭, <爲了“共產主義之人間化”>, 《新聞戰線》第6期, 1985. 6.
- 潘家春, <早期瞿秋白對社會主義的認識與探討>, 《上海師範大學學報》第3期, 1985. 10.
- 민두기, <中國國民黨의 '改進黨' '改組'>, 《中國初期革命運動의 研究》,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汪祿應, <瞿秋白的文化觀>, 《湖南第一師範學報》 第3卷第4期, 2003. 12.

楊成敏, <論瞿秋白文化思想的時代特點>, 《河南師範大學學報》 第33卷第6期, 2006. 11.

< Abstract >

Humanitization of Communism and Revolution in the 1920's
- Qu Qiu Bai's Realiz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Ideology

Lee, Hyunbok

Qu Qiu Bai believed that changing the method according to reality, the ideology or ideal of communism would be realized. That was humanization. In Soviet Russia, Russian Communist Party tried to establish an overall socialist culture, such as ethnicity, economy, politics, diplomacy and morality of socialist country through the formulation of a policy. In China, the Imperial system as the pre-modern national system was collapsed, but the pre-modern culture was still intact, so China couldn't advance to the next level of culture. Because imperialist powers and warlords were blocking its development politically. So under this condition, political revolutions to overthrow the reactionary forces and establish a new type of state were urgent tasks. The cultural revolution was a ultimate goal to be realised in China, but it was not immediate one at that time. What was urgent was the national revolution against imperialism and compardors, and democratic revolution opposing to the domestic warlords. The former establish an independent country and the latter found a unified political system and national unification market system. Qu Qiu Bai thought that the cultural revolution could only be achieved after political revolution. However, Qu Qiu Bai was taking the sujet both in the current political revolution and in the ultimate cultural revolution into consideration. They

should't be the ones organized by rulers, but be the ones who would organize and act for themselves. The ruling party tries to ideologize and perpetuate the political practice of reality which is a transitional stage or a means. Qu Qiu Bai regarded a politicization for the realization of the ideal as humanization, but raised a question on it by presenting it as a transitional step. On the other hand it meant that the cultural revolution as a social practice should be developed by the subject who organize and practice by oneself.

Key words: Qu Qiu Bai, communism, humanitization, culture, cultural revolution, Nationalist Revolution, nation, democracy, anti-imperialism, anti-feudalism, political revolution, world-revolution, proletariat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20. 04. 30	2020. 05. 11 - 05. 29	2020. 05. 19	2020. 06. 01	2020. 06. 30

